

Q 방법론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학습에 대한 경영대학원생의 인식 유형 연구

박 미 혜*

박 정 열**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으로 촉발된 오프라인 대면 학습에서 하이브리드 학습(Hybrid Learning)으로의 전환에 대한 경영대학원생의 인식을 유형화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습 방식을 도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Q 방법론을 활용하여, 33개의 진술문으로 Q 표본을 구성되었다. P 표본은 하이브리드 학습 방식을 경험한 18명의 학생으로 구성하였고, 온라인 Q Methodology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총 5개의 인식유형이 도출되었는데 <유형 1>은 학습 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학습방식으로 인식하는 긍정형, <유형 2>는 비대면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인식하는 온라인 학습 선호형, <유형 3>은 비대면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인식하는 오프라인 학습 선호형, <유형 4>는 오프라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불만족형, <유형 5>는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아 편하게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는 효율추구형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영대학원에 새로운 학습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학습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의 특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효과적인 하이브리드 학습 방식 및 체계적인 교육-학습 전략을 구축하는데 기초를 제공하고 나아가 경영대학원 교육의 효과를 지속할 수 있는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하이브리드 학습(Hybrid Learning), 경영 교육, 교육 혁신, 실재감, 주관적 인식, Q 방법론

1. 서론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3월 11일 COVID-19 팬데믹을 선언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대학과 대학원들이 대면 수업을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했다. 대학과 대학원의 교수진과 직원은 강의 비디오 제작, Zoom, Teams, WebEx 등과 같은 실시간 교육 도구 사용, 학습관리시스템(Learning Management System: LMS)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였다. 국내의 경우, 2020년 5월 COVID-19의 전염 확산이 잦아들기 시작하자 학교에서는 온라

인과 오프라인 학생을 결합하는 하이브리드 학습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도 유연하게 학습을 운영하는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다(박미혜, 박정열, 2022).

하이브리드 학습이란 일부 학습자는 물리적인 오프라인 강의실에 있고 일부 학습자는 영상회의 플랫폼 등을 사용하여 강의실에서 진행되는 학습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학습 방법을 말하며, Hyflex learning, Synchronous hybrid learning, Synchronous blended learning, Muti-access learning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한송이, 이가영, 2021; KERIS, 2020).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오프라인 교

논문접수일: 2022. 04. 13. 1차 수정본 접수일: 2022. 06. 06. 2차 수정본 접수일: 2022. 06. 20. 게재확정일: 2022. 06. 30.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storytellerseojin@gmail.com)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 부교수(cypark@assist.ac.kr)

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 비실시간 온라인 교육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자들에게 선택권을 주어 학습자 요구를 수용할 수 있으며, 강의실 환경과 유사한 학습 공간을 구축하여 오프라인, 온라인 학습자에게 공평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Cunningham, 2014).

이러한 하이브리드 학습이 가지고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학습과 관련된 연구와 적용은 해외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2022년 국내의 경우, 여러 대학에서 하이브리드 학습을 위한 연구와 하이브리드 학습이 운영될 수 있는 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대학교 SNU Hybrid 강의, 세종대학교 온·오프라인 믹스 하이브리드 러닝, 한양대학교 하이 라이브(Hy-LIVE)의 수업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한송이, 이가영, 2021). 반면 해외에서 진행된 하이브리드에 대한 연구는 하이브리드 수업이 가능한 수업 환경 구성, 하이브리드 수업 운영, 설계 사례, 설계 전략 도출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 경영 교육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COVID-19 이전까지 경영 교육 현장에서는 교수와 학생 모두 오프라인 학습이 주를 이루었으며, 비대면 상황으로 전환이 올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오프라인 학습에서 온라인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은 새로운 교수-학습 설계일 뿐 아니라(도재우, 2020). 온라인과 오프라인 학습이 병행되는 하이브리드 학습을 설계하는 것은 더 심도있는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한송이, 이가영, 2021). 특히 포스트 코로나에는 하이브리드 학습 형태는 그 이전과는 다를 것이기 때문에(Raman, Sullivan, Zolbanin, Nittala, Hvalshagen & Allen, 2021), 국내 경영 교육 현실을 반영한 하이브리드 학습과 관련된 사례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오프라인 학습자와 온라인 학습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하이브리드 학습에 대한 학

습자의 주관성을 분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COVID-19로 인한 교육의 대전환으로 하이브리드 학습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경영대학원생들의 인식 유형을 Q 방법론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Q 방법론은 인간의 주관성(Subjectivity)을 바탕으로 조직 혹은 집단 내의 문화, 인식, 가치관, 태도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과 분석하여 이론이나 가설을 도출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다. 하이브리드 학습 경험에 대한 경영대학원생의 주관적 인식 유형과 같이 타인의 설명이 아닌 개인 내적 구조를 분석하는데 적절한 연구방법이다(김홍규, 2008). 연구자 보다는 참여자 관점에서 진술문을 만들기 때문에 대학원생이 하이브리드 학습 경험에 대한 실제적이고 분석적인 인식 유형에 대해 알아보려는 본 연구의 목적에 적합하다.

본 연구를 통해 경영대학원생들이 학습자 입장에서 하이브리드 학습 경험에 대한 인식 유형의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개인차를 바라볼 수 있으며, 학습자의 인식 유형을 통해 교수자 입장에서도 보다 질 높은 교수-학습 방법과 교육체계 수립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대학원생의 하이브리드 학습 인식 유형은 어떠한가?

둘째, 경영대학원생의 하이브리드 학습 인식 유형별 특성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2.1 하이브리드 학습의 개념과 특징

원격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실시간 하이브리드 강의실의 개념이 제안되

었는데, 하이브리드 강의실의 개념은 오프라인에서 대면하는 학습자와 다양한 위치에 있는 원격 학습자가 동시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Butz, 2016; Hastie, 2010). 반면에 교수자는 학습자와 대면 및 비대면 상황에서 상호작용할 수도 있다. Raes et al. (2019)은 2003년부터 2019년까지 발표된 학술논문에서 실시간 하이브리드 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하여 실시간 하이브리드 학습의 이점과 한계점, 교수 설계 지침에 대한 연구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실시간 하이브리드 학습의 이점을 조직적 혜택과 교육적 혜택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조직적 혜택은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학습자의 대학 등록률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것은 고령화 사회의 인구 변화에 따른 학생 인구 감소로 인한, 현재의 경영대학이 직면한 학생 수 하락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입장에서 하이브리드 환경은 물리적 위치에 구애받지 않고 교육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일을 하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평생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 불평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된다(Bower, Dalgarno, Kennedy, Lee & Kenney, 2015). 또한 온라인 방식으로 편리하게 외부 전문가를 하이브리드 강의실로 초대할 기회가 증가되어, 다양한 지식을 더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 있다(Bell, Sawaya & Cain, 2014). 또한 학습자들에게 코스 출석의 자유와 유연성을 제공한다(Beatty, 2007). 이러한 환경은 교수자, 대면 및 비대면 학습자 간의 사회적 관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Anastasiades, Filippousis, Karvunis, Siakas, Tomazinakis, Giza & Mastoraki, 2010). Abdelmalak & Parra (2016)의 연구는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이 학습자들이 학습에 대해 더 잘 통제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연구를 통해 밝혀내었다. Butz & Askim-

Lovseth(2015)은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을 통한 교수법이 학습자들이 업무를 병행하면서 역량 개발과 미래의 경력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Raes et al.(2019)의 연구에서 하이브리드 학습 연구에서 아직까지 대면 학생과 비대면 학생 간의 결과 차이를 평가하는 연구는 거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습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에서의 교수자의 역할이 크다고 강조하면서,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교육 만족을 주게 되면, 대면 학습과 유사한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Abdelmalak, Parra, 2016; Lakhali, 2017; Ramsey, 2016). Frazer, Hussey, Sullivan & Weatherspoon (2017)은 하이브리드 학습을 위한 교수자의 역량과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효과적인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협력적인 학생 활동, 교수의 실재감, 다양한 교수법 사용이 포함되는데, 하이브리드 학습은 대면 학습에 비해 교수자에 대한 요구가 더 높다고 하였다(Adersen & Avery, 2008; Cananaugh, 2005; Tomei, 2006). Cananaugh(2005)은 교수자에 대한 시간 기록을 사용하여 교수자가 과정을 가르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Bettinger & Loeb(2017)는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가장 큰 차이가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라고 지적하면서,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동일한 과목을 수강할 때, 오프라인에서 수강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수강할 때 학습 및 지속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온라인 강의는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준비가 덜 된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지속성을 갖기 어려워서, 온라인 과정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대학 중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온라인 학습자들의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서

는 신중한 교육 설계 및 계획이 필요하다(Branch, Dousay, 2015). Shea(2007)은 교육 설계가 잘 되지 않으면, 온라인 교육에 대한 학습자의 동기가 상실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온라인으로 가르칠 때 학습자들과 면대면 상호작용이 누락 되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하이브리드 학습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다양한 명칭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학습자를 결합하는 방식을 연구하는 분야가 있다. 2011년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은 플렉스 러닝(FlexLearning) 프로그램을 시작했다(McCluskey, Shaffer, Grodziak & Hove, 2012). 21세기 학습자들의 다양한 학습 요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되었는데, 커리큘럼의 질적 개선, 테크놀로지 기반 교육 방법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유연한 학습 방식을 도입하였는데, 전통적인 오프라인 학습과 온라인 학습 옵션을 하나의 동일한 코스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샌프란시스코 주립대학에서는 2005년 대학원생들의 신입생 정원 미달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에 올 수 없는 학생들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온라인 학습을 고려하게 되었다. 당시 교수진과 기술 역량을 분석한 결과, 완전한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하는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하여, 하이브리드 학습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다. 하이플렉스(HyFlex)라고 학습방법을 지칭하고, 하이플렉스 과정은 학생들이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으로 학습에 참석할 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수업 세션으로 정의하였다. 온라인 기술은 실시간 뿐만 아니라, 비실시간으로 학습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습 경험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수업 이후에도 교수진과 의사소통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Beatty, 2019). 하이플렉스(Hyflex)는 하이브리드(Hybrid)와 플렉시블(Flexible)을 융합한 언어로 Brian Betty 교수가 2005년 처음으로 사용한 개념으로, 수업의 참여에

대한 선택권을 학습자에게 주는 수업의 형태를 의미한다(한송이, 이가영, 2021; KERIS, 2020).

하이브리드 학습에서는 일부 학습자가 물리적 강의실에 있고, 일부 학습자는 화상회의 플랫폼을 활용하여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활동에 함께 참여한다(Bower, Dalgrano, Kennedy, Lee & Kenney, 2014). 그로 인해 온라인 수업의 한계로 발생하는 교육의 질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OVID-19로 거리두기 정책에 따른 대면 수업을 다수의 학생들이 함께 수강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실행되면서, 국내의 몇몇 대학에서 COVID-19 이후의 하이브리드 학습이 가능한 학습 공간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운영을 준비하는 등 하이브리드 학습을 도입하고 있다. 예컨대, 직장을 병행하거나, 질병 또는 육아 돌봄으로 오프라인 학습에 참여가 어려운 학습자는 온라인으로 수업에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 접근에 편리성이 있고, 온라인 학습을 통해 제공되기 어려운 실시간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Park, Bonk, 2007). 또한 하이브리드 학습은 유연한 학습이 가능한데,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학습 참여 방식의 선택을 학습자에게 결정하게 하여 학습자의 교육 만족도가 높고, 실시간으로 교수자 혹은 학습자 간의 면대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Irvine 2010; 2020).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지역의 학습자가 동일한 수업에서 학습자 간의 학습 커뮤니티를 형성함으로써, 다양한 관점과 지식을 나눌 수 있다. 지리적 어려움을 최소화하여 서로 다른 국가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교육에서 하이브리드 학습 방식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Cummingham, 2014; Stewart, 2011).

오프라인과 온라인 학습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하이브리드 학습은 오프라인 학습자의 온라인 학습자와 공평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수업 설계과 학습 활동을 구성해야 하므로, 전통적인 수업과는 다르게 설계되어야 한다. 첫째, 학습자에게 온라인, 오프라

인 학습방식의 선택권을 제공해야 한다(Raman, Sullivan, Zolbanin, Nittala, Hvalshagen & Allen, 2021). 하이브리드 학습은 학습자의 자율과 선택을 주고, 참여 방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므로, 시작 전 학습자의 참여 방식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업 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이 설계되어야 한다. 하이브리드 학습을 경험한 학생들은 오프라인 학습만 듣거나, 실시간 온라인 학습만 들을 때 보다 상호작용에 더 많은 불편함을 느꼈다(Kohnke, Moorhouse, 2021). 예컨대 실시간 수업에서는 교수가 발언을 하지 않을 때 질문을 하면 되었지만, 하이브리드 학습에서는 오프라인에도 학습자가 있어서 그들이 질문을 언제 할지 동영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가끔 동시에 발언하는 경우, 음성이 겹쳐져서 실시간 발언의 자율성이 떨어진다(한송이, 이가영, 2021). 그러므로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온라인, 오프라인 학습자가 서로 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Raman, Sullivan, Zolbanin, Nittala, Hvalshagen & Allen, 2021).

2.2 경영대학원의 교육혁신과 디지털 학습의 전환

한국경영학회가 전국의 경영학 교수와 실무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63%가 국내의 경영 교육이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경영 교육이 오늘의 기업의 필요를 어느 정도 충족하는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가 27%, 부정평가가 36%였다. 특히 기업을 제외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의 필요를 충분히 충족하는가에 대해서는 20%만이 긍정평가를 한 데 반해, 52%가 부정평가를 해 국내 경영 교육이 기업의 이해관계자에 대해 더욱 균형 잡힌 관심을 가질 필요를 제기한다.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 등 경영환경의 변화에 비춰볼 때 경영 교육이 변화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32%가 비교적 크다, 57%가 매우 크다고 응답했다. 국내 경영 교육이 시급히 보완해야할 점으로는(중복응답), 인간과 사회에 대해 이해와 소통능력(41%), 창업 및 기업가정신(39%), 현장 밀착 교육(38%), 경영학 세부전공의 융합(37%), 경영철학과 기업윤리(35%), 경영학과 공학의 융합(34%),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활용(31%), 경영학과 인문학의 융합(22%) 순으로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향후 경영 교육이 변화할 필요가 많음을 시사하고 있다(이두희, 윤성수, 이성호, 2020).

권순창(2020)은 국내 경영 교육의 문제점으로 제조업 기반 교육 중심, 정보화 산업 교육에 대한 반영 미비, 미래 경영 교육에 대한 대비 부족, 경영 교육 혁신 주체의 부재, 경영 교육 평가 및 인증기관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경영 교육 혁신, 미래 경영 교육에 대한 연구, 국제화 교육을 제시하였다.

이상민과 최성진(2020)는 한양대 경영대학 교육과정 혁신에 대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경영 교육 공급자 관점에서 기능적인 전공으로 분화되어 제공되던 경영 교육 과정을 혁신해 수요자 중심으로 개발된 4개의 역량 단계와 3개의 교육 방법에 기반한 빅 인텔리전스 경영 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공급자 중심 교육과정이나 융합형 교육과정과 다른 점은 학습자들이 학교에서 정한 교과목 수강 단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관심사에 맞춰 과정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실험 실습 기반의 교과목 전환을 촉진한다는 점 등이다.

교육혁신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교육방법의 혁신이다(이지은, 2020). 박찬수와 류수영(2020)은 경영학 교수법의 혁신안으로 플립러닝(Flipped learning)과 문제중심학습(Problem basesd learning)을 연구하였다. 대학에서 배운 전공 지식만으로 급변하는

고용시장의 요구에 대처하기 어려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자기주도 학습의 근육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전 세계적으로 13,000개 이상의 비즈니스 스쿨에서 학위를 제공하고 있다(Williams, 2011). 비즈니스 학위는 모든 학문 분야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위이다. 2018년에 미국에서 수여된 비즈니스 학위는 수여된 모든 학사 학위의 19.5%를 차지했다(NCES, 2019). 같은 해 400,000명 이상의 학사 및 석사, 비즈니스 학위가 EU 27개국에서 수여되었다(Eurostat, 2018).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16년 국내 경영학 박사 학위 취득자는 1,059명으로 2012년(806명)에 비해 31%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박사 학위자 증가율(13%)을 두 배 이상 웃돈다(박병영, 2017).

경영 교육의 이러한 범위와 다양성은 학습자, 경영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가 보유한 가치를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를 유지하려면 경영 교육은 사회적 요구와 기대, 그리고 그 주제인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모두 다루어야 한다(Ghoshal, 2005; Khurana, 2007). COVID-19 팬데믹 이후, 엄청난 혼란 속에서 경영 교육이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시의적절하다고 보여진다. 경영 교육은 혁신적인 대응이 필요한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다(조동성, 2021; Bachrach et al., 2017; Peters, Smith, & Thomas, 2018; Thomas, Lee, Thomas, & Wilson, 2014; Üsdiken, Kipping, & Engwall, 2021). 경영 교육에 대한 변화의 동인은 복잡적이며 글로벌 시장의 변화를 포함한다. 경영자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문화적 맥락, 변화하는 사회적 기대, 다양한 기술 개발, 새로운 형태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기후와 환경 변화 및 지속 가능성 문제들은 전 세계적으로 경영 교육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COVID-19

이후, 교육 시스템 폐쇄로 인해 원격 및 디지털화된 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비즈니스 스쿨은 미래에 대한 질문에 직면해 있다. 경영 교육 실행의 현재 모델이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할 수 있는지, 기존 접근 방식이 여전히 적합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온라인으로의 전환이 비교적 느린 분야가 비즈니스 스쿨이었다(Kohan, 2020; Sawhney, 2021). 팬데믹은 디지털 기술로의 이동을 가속화 했다. 디지털 교육 기술의 채택은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방식과 속도로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비즈니스 스쿨의 경영 교육을 변화시켰다. 최근 경영 교육 분야에서도 개별 맞춤형 학습에 대한 기대가 두드러지고 있다. 학습자에게 더 많은 선택과 유연성, 혁신적인 교육, 기술 기반 제공 옵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자유롭고 자기 주도적인 관리 학습자는 점점 더 성숙해지고 자신감이 커짐에 따라 내용과 과정 모두에서 교육 경험을 스스로 관리할 것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의 가용성과 더 높은 수준의 대화형 콘텐츠를 가능하게 하는 신기술로 인해 많은 비즈니스 스쿨이 온라인 시장에 뛰어들었다(Andrade, Miller, Kunz, & Ratliff, 2019). 그러나 여전히 학습자들이 가상환경이 아닌 대학 기반 학습 경험을 중시하고 대학 기반 커뮤니티에 소속된 경험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에도 경영 교육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학습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Kohan, 2020; Sawhney, 2021).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경영대학원생의 하이브리드 학습 방식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확인하고 유형화하는



〈그림 1〉 Q 방법론 연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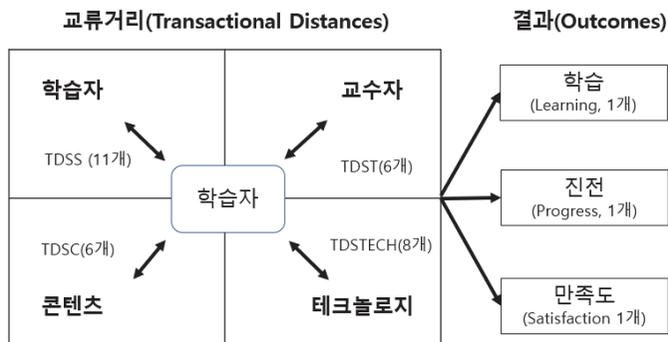
것이고, 이를 위해 Q 방법론을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절차는 문헌연구 및 대상자 인터뷰, Q 모집단 구성 및 추출 및 전문가 심층면담을 통한 수정 및 보완, P 표본 선정, Q 분류, 결과해석 및 유형화 등의 다섯 가지 단계이다(〈그림 1〉 참조).

3.1 Q 모집단 및 Q 표본의 선정

1) Q 방법론에서는 먼저 Q 표본을 선정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구조화된 표집(Structured sampling)으로 Q 진술문을 제작하였다. 이론적으로 중요하게 논의되는 요소들을 바탕으로 연구주체에 맞는 진술문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구조화된 표집이 적합하다. 하이브리드 학습은 이론적, 실제적으로 그 가치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구조화된 표집이 적합하다고 보여진다. 이 연구에서는 Q 표본 선정에 앞서 문헌 연구를 통해 구조화하였다.

Paul, Swart & MacLeod(2022)의 원격 교육에서 교류적 거리의 상대적 근접성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에서 제시된 개념적 모델을 토대로 진술문을 작성하였다. 원격 교육에서 교류적 거리는 대화, 구조, 학습자 자율성의 세 가지 변수의 함수이다. 대화는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의사소통, 구조는 개인의 필요에 부응하는 학습의 유연성, 그리고 자율성은 학습 과정에서 개인화의 정도를 나타낸다. 교류적 거리 이론에서는 높은 수준의 구조와 낮은 수준의 대화가 교류적 거리를 증가시키고, 학습자의 학습을 감소시킨다고 보고 있다. TDST(Transactional distance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는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교



〈그림 2〉 Q 표본 구조화

〈표 1〉 Q 진술문

번호	진술문	비고
Q01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교수(Instructor)는 나에게 도움이 된다.	TDST
Q15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내 학업 성과에 대해 교수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기 어렵다.	TDST
Q16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교수에게 질문하기 어렵다.	TDST
Q05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동료 학생들과 함께 할 때 가치있다고 느낀다.	TDSS
Q06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동료 학생들은 나의 의견과 판단을 지지해준다.	TDSS
Q17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나는 동료 학생들과의 소통이 어렵다.	TDSS
Q18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동료 학생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TDSS
Q23	동기와 선배들에게 논문과 관련해 도움이 되는 학회와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	TDSS
Q24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내가 동료 학생을 방해하거나 교수의 강의에 영향을 미칠까봐 참여하는 것이 주저된다.	TDSS
Q33	수업하는 동안 나와 다른 방식으로 접속(오프라인 또는 온라인)해 있는 학생들과 같은 그룹처럼 느껴지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낀다.	TDSS
Q02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아이디어, 정보를 얻거나 새로운 해석에 대한 경험을 한다.	TDSC
Q03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비판적 사고력이 향상되는 경험을 한다.	TDSC
Q04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배운 이론과 개념을 실제 문제나 새로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	TDSC
Q21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다루는 내용이 흥미롭지 않다.	TDSC
Q07	학습관리시스템(줌, 구글클래스, 학사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TDSTECH
Q20	학교 학습관리시스템(줌, 구글클래스, 학사시스템 등)을 사용하면서 좌절감을 느낀다.	TDSTECH
Q27	IT, 통계 등 실습 학습도 하이브리드 학습으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	TDSTECH
Q30	나는 학습관리시스템(줌, 구글클래스, 학사시스템 등)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한다.	TDSTECH
Q32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staff들의 테크놀로지 이슈 지원이 필수적이다.	TDSTECH
Q08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원하는 교육효과/혜택을 얻는다.	학습효과
Q09	하이브리드 학습은 나의 학습기대를 충족 시킨다.	학습효과
Q10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	학습효과
Q12	수업 참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중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학습과정
Q22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나는 고립감을 느낀다.	학습과정
Q25	하이브리드 학습은 팬데믹 상황에서 학업을 위한 빠른 대처 방법이며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	학습과정
Q28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필요하다.	학습과정
Q11	앞으로도 박사과정은 하이브리드 학습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면 좋겠다.	만족도
Q13	온라인 방식을 선택할 경우 학교에 가지 않아 이동시간 및 비용이 절약된다.	만족도
Q14	강의 장소에 제약이 받지 않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만족도
Q19	하이브리드 학습으로 운영되는 과정을 더 수강하고 싶지 않다.	만족도
Q26	내 조연을 구하는 예비 학습자에게 하이브리드 학습방식의 박사과정을 추천하겠다.	만족도
Q29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전반적으로 수업의 질에 만족한다.	만족도
Q31	하이브리드 학습 중 오프라인 수업을 선호한다.	만족도

류적 거리, TDSC(Transactional distance between students and contents)는 학습자와 콘텐츠 간의 교류적 거리, TDSS(Transactional distance between students and students)는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교류적 거리, TDSTECH(Transactional distance between students and instructional technology)는 학습자와 테크놀로지 간의 교류적 거리를 의미하며, 결과로서 학습(Precess), 진전(Progress), 만족도(Satisfaction)에서 34개의 진술문을 도출하였다.

2) 도출된 모집단에 대해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3명을 대상으로 하이브리드 학습방식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심층 면담을 실시하여, 유사하고 중복되는 내용 병합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하이브리드 학습 경험에서 나온 대학원생의 진술문을 추가 반영하였다.

3) 교육공학 전문가 5인, 주관성 연구를 수행 경험이 있는 교수 1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최종 진술문을 점검하였다. Q 진술문의 문법적 오류를 확인하였고 의미가 비슷하거나 겹치는 문장은 수정 보완하고, 주제에서 벗어나거나 이해가 어려운 문장은 제거하였다. 결과에 해당 하는 용어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학습효과, 학습과정, 만족도로 변경하였다. 다음은 여러 번의 수정 보완을 통해 최종 선정된 33개의 Q 표본이다(〈표 4〉참조).

3.2 P 표본의 설정

P 표본(P sample)은 최종 진술된 Q 표본을 분류할 연구 대상자를 의미한다. Q 방법론은 소표본 이론(small sample doctrine)에 근거하여 개인 간의 차이(inter-individual differences)를 보기보다는, 개인 내의 중요성의 차이(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를 다룬다(김홍규, 2008). P 표본의 수는 1~50개 정도가 적합하며, 오히려 P 표본

이 커지면 특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통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한 요인에 여러 사람이 편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목적이 대학원생의 하이브리드 학습 인식에 대한 주관성을 탐색하는 것이므로 18명의 표본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이 연구의 P 표본은 경영학 전공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2022년 3월 12일~3월 23일까지 모집하였으며 〈표 2〉와 같이 총 18명의 P 표본을 선정하였다. 연구목적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연구와 관련하여 동의를 구한 후 진행하였다.

3.3 Q 표본의 타당도 및 신뢰도 검증

Q 방법론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내용타당도, 안면타당도의 단계를 거쳤다. 첫째, 내용타당도 검증은 일반적으로 문헌고찰에 의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에 의한 하이브리드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 경영대학원 3인 심층인터뷰에 의한 33개 진술문 내용 적절성 확인 등으로 검증하였다. 둘째, 안면타당도는 경영대학원 3인과 전문가 5인이 사전모의 Q 분류를 통해 진술문의 수정·보완 단계를 거쳐 이루었다.

개념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는 0.7이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는 적합한 수준이다(〈표 3〉참조).

3.4 Q 표본 분류

P 표본이 Q 표본을 개인의 관점에 따라 주어진 배치표에 동의하는 순서대로 배치하는 과정을 Q 분류(Q Sorting)라고 한다. 따라서 Q 표본의 진술문이 개개인의 P 표본에게 어떻게 분포되고 층위화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Q 분류는 연구자의 평가 기준을 갖지 않는다(장하영, 이영민, 2019).

〈표 2〉 P 표본

번호	성별	연령	학기	직무	경력
p=1	여	40	박사 4학기	전략/기획	15년 이상
p=2	남	51	박사 졸업	인사/교육	25년 이상
p=3	남	43	박사 5학기	인사/교육	10년 이상
p=4	남	54	박사 졸업	인사/교육	10년 이상
p=5	여	50	박사 5학기	경영총괄	20년 이상
p=6	남	61	박사 5학기	생산/제조	25년 이상
p=7	남	49	박사 졸업	전략/기획	20년 이상
p=8	남	47	박사 5학기	전략/기획	15년 이상
p=9	남	58	박사 5학기	인사/교육	25년 이상
p=10	남	46	박사 5학기	전략/기획	15년 이상
p=11	남	48	박사 졸업	전략/기획	20년 이상
p=12	여	54	박사 3학기	인사/교육	15년 이상
p=13	여	30	박사 1학기	기타	25년 이상
p=14	남	51	박사 4학기	경영총괄	15년 이상
p=15	남	42	박사 5학기	인사/교육	15년 이상
p=16	여	55	박사 졸업	인사/교육	25년 이상
p=17	여	32	박사 1학기	인사/교육	5년 이상
p=18	여	63	박사 2학기	기타	20년 이상

〈표 3〉 개념 신뢰도의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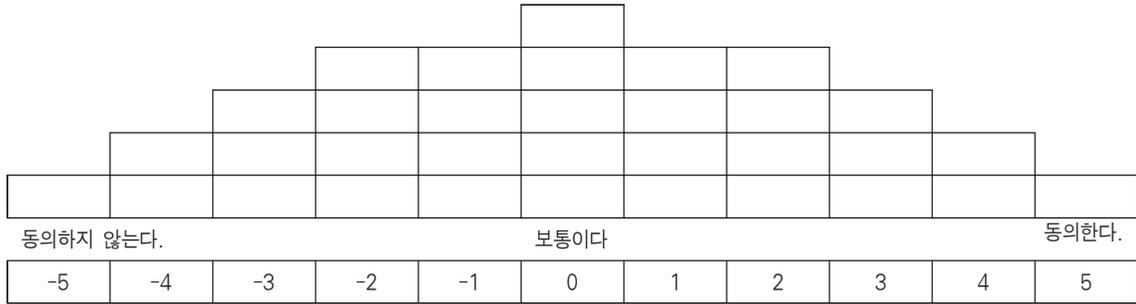
내용/유형	I	II	III	IV	V
Composite Reliability	0.96552	0.80000	0.94118	0.80000	0.80000
S.E of Factor Z-Scores	0.1857	0.44721	0.24254	0.44721	0.44721

Q 분류는 '동의한다'와 '동의하지 않는다' 반대 양극에서 Q 카드를 채우기 시작해 '보통이다(중립)'로 와서 끝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P 표본으로 선정된 경영대학원생을 대상으로 33개의 진술문을 읽고 난 후, 우선 자신이 동의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3단계로 분류하도록 하고, 〈그림 3〉의 Q 표본 분포도에 강제 분류하도록 하였다.

3.5 자료처리

P 표본으로 표집된 18명에 대한 Q 표본 분류가

완료된 후, 수집된 자료를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경우 -5점으로 시작하여 보통(중립)인 경우 0점, 그리고 가장 동의하는 경우 +5점을 부여하여 점수화하였고 자료분석은 온라인 Q Methodology Softwar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코딩 처리하였으며(Lutfallah, Buchanan, 2019), Q 요인분석을 위하여 주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였다. Eigen값 1.0 이상을 기준으로 각 요인을 산출하고, 적합한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표준점수(z-score)를 활용하였다. 각 유형은 표준점수, 표준점수 차이 등을 분석하여 유형별 특성을 명명하였다(이송이, 김혜원, 2019).



〈그림 3〉 Q 표본의 분포도

IV. 연구방법

4.1 결과분석

연구 결과 총 5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다(〈표 4〉 참조). 각 유형의 설명력은 〈유형 1〉이 43%, 〈유형 2〉이 13%, 〈유형 3〉이 7%, 〈유형 4〉는 7%, 〈유형 5〉는 6%로 나타났다. 전체 유형 설명력은 76%로 나타났다. 보통 25% 이상이면 분석 결과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김대영, 이민영, 2015). 이 기준에 따라 충분한 설명력을 갖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각 유형 간의 상관관계는 각 유형 간의 유사

성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유형 1〉과 〈유형 2〉는 -17%, 〈유형 1〉과 〈유형 3〉은 49%, 〈유형 1〉과 〈유형 4〉는 -15%, 〈유형 1〉과 〈유형 5〉는 13%, 〈유형 2〉와 〈유형 3〉은 3%, 〈유형 2〉와 〈유형 4〉는 -0.3%, 〈유형 2〉와 〈유형 5〉는 10%로 나타났으며 다음 〈표 5〉와 같다.

4.2 하이브리드 학습에 관한 특성

4.2.1 인자가중치

본 연구의 인식 유형별 인자가중치는 〈표 6〉과 같다. 인자가중치가 높을수록 해당 유형의 대표성을

〈표 4〉 5가지 유형 분류에서의 아이겐 값과 설명 변량

내용/유형	I	II	III	IV	V
Eigen vlaue	7.78232	2.26829	1.33282	1.26397	1.08431
Variance	43	13	7	7	6
Cumulative Variance	43	56	63	70	76

〈표 5〉 각 유형간 상관관계 계수

내용/유형	I	II	III	IV	V
I	1	-0.17796	0.49443	-0.15591	0.13704
II		1	0.03764	-0.03365	0.10096
III			1	-0.00686	0.23436
IV				1	0.02404
V					1

〈표 6〉 5가지 유형별 사람과 인자가중치

유형	번호	인자가중치
1유형 (n=7)	P=1	0.79014
	P=4	0.71308
	P=5	0.73000
	P=9	0.85450
	P=11	0.70004
	P=12	0.81798
	P=15	0.78501
2유형 (n= 1)	P=17	0.82994
3유형 (n=4)	P=3	0.68818
	P=6	0.72534
	P=7	0.59083
	P=8	0.78198
4유형 (n= 1)	P=14	0.86354
5유형 (n= 1)	P=18	0.92315

가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각 유형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으로 유형1은 P=9(0.81798), 유형2는 P=17(0.82994), 유형3은 P=8(0.78198), 유형4는 P=14(0.86354), 유형5는 P=18(0.92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어떤 인자에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많다는 것은 다른 요인에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인데 보통 3~4명 이상이라면 해석 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1~2명이라 하더라도 인자가중치(Factor weight)가 0.4 이상이며, 매우 높다면 예외가 될 수 있다(김홍규, 2008).

4.3 인식유형 특성

4.3.1 〈유형 1〉 학습 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학습방식으로 인식하는 긍정형

7명의 P 표본이 포함된 〈유형 1〉은 하이브리드 학습이 학습 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학습방

식으로 인식하는 긍정형이다(〈표 7〉 참조). 이들은 하이브리드 학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수업 참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중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하이브리드 학습은 나의 학습 기대를 충족시킨다’, ‘앞으로도 박사과정은 하이브리드 학습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면 좋겠다’라고 보았으며, 경영대학원의 교육 혁신의 방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으로는 ‘하이브리드 학습으로 운영되는 과정을 더 수강하고 싶지 않다’,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동료학생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좌절감을 느낀다’를 선택하였다.

〈유형 1〉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하이브리드 학습은 나의 학습 기대를 충족시킨다’라는 진술문에 강하게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이브리드 학습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이브리드 학습은 팬데믹 상황에서 학

〈표 7〉 유형1의 진술문과 표준점수(± 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2	수업 참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중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1.56483
09	하이브리드 학습은 나의 학습기대를 충족 시킨다.	1.42345
11	앞으로도 박사과정은 하이브리드 학습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면 좋겠다.	1.30769
29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전반적으로 수업의 질에 만족한다	1.23465
28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필요하다.	1.2294
13	온라인 방식을 선택한 경우 학교에 가지 않아서 이동시간 및 비용이 절약된다.	1.03478
23	동기와 선배들에게 논문과 관련해 도움이 되는 학회와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	-1.00062
16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교수에게 질문하기 어렵다.	-1.18734
22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나는 고립감을 느낀다.	-1.23394
21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다루는 내용이 흥미롭지 않다.	-1.61193
20	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줌, 구글 클래스, 학사시스템 등)을 사용하면서 좌절감을 느낀다.	-1.61655
18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동료학생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1.76043
19	하이브리드 학습으로 운영되는 과정을 더 수강하고 싶지 않다.	-1.81055

습을 위한 빠른 대처방법이며,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는 진술문에 대한 비동의 점수가 높았다. 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좌절감을 느낀 경험이 적고, 수업 중 상호작용이 적절하다고 느끼고 있어 상대적으로 고립감을 적게 느끼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수업에서 테크놀로지 사용에 능숙한 것으로 보여지며, 하이브리드 학습 방식이 경영대학원의 새로운 교육 혁신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3.2 〈유형 2〉 비대면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인식하는 온라인 학습 선호형

1명의 P 표본이 포함된 〈유형 2〉는 비대면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인식하는 온라인 학습 선호형이다(〈표 8〉 참조). 긍정적 진술문을 보면 ‘하이브리드 학습은 팬데믹 상황에서 학업을 위한 빠른 대처 방법이며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 교수에게 질문하기가 어렵다’, ‘내 학업 성과에 대해 교수로부터 피드백 받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반면 ‘IT, 통계 등 실습 학습도 하이브리드 학습으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 ‘내 조연을 구하는 예비 학습자에게 하이브리드 학습방식을 박사과정에 추천하겠다’, ‘앞으로도 박사과정은 하이브리드 학습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면 좋겠다’는 진술문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유형 2〉는 다른 유형에 비하여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교수에게 질문하기 어렵다’에 강하게 동의하였다.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배운 이론과 개념을 실제 문제나 새로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 학습으로 운영되는 과정을 더 수강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학습방식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동시간이 절약되는 장점 보다는 고립감을 느끼는 부분이 더 크게 불편하고, 학습 상황에서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기대사항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8〉 유형 2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5	하이브리드 학습은 팬데믹 상황에서 학업을 위한 빠른 대처 방법이며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	1.96116
16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교수에게 질문하기 어렵다.	1.56893
15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내 학업 성과에 대해 교수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어렵다.	1.56893
28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필요하다.	1.1767
04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배운 이론과 개념을 실제 문제나 새로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	1.1767
17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나는 동료 학생들과의 소통이 어렵다.	1.1767
10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	-1.1767
21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다루는 내용이 흥미롭지 않다.	-1.1767
14	강의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1.1767
11	앞으로도 박사과정은 하이브리드 학습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면 좋겠다.	-1.56893
26	내 조언을 구하는 예비 학습자에게 하이브리드 학습방식의 박사과정을 추천하겠다.	-1.56893
27	IT, 통계 등 실습 학습도 하이브리드 학습으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	-1.96116

4.3.3 〈유형 3〉 비대면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인식하는 오프라인 학습 선호형

4명의 P 표본이 포함된 〈유형 3〉은 비대면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인식하는 오프라인 학습 선호형이다(〈표 9〉 참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은 ‘하이브리드 학습은 팬데믹 상황에서 학업을 위한 빠른 대처 방법이며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필요하다’,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staff들의 테크놀로지 이슈 지원이 필수적이다’라고 나타났다. 반면 ‘나는 고립감을 느낀다’, ‘동료 학생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하이브리드 학습으로 운영되는 과정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진술문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온라인 참여자에 비해 오프라인 참여자는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이 잘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형 3〉은 다른 유형에 비하여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동료 학생들은 나의 의견과 판단을 지지해 준다’에 강한 동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습관

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IT, 통계 등 실습 학습도 하이브리드 학습으로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staff들이 테크놀로지 이슈 지원을 잘 받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고립감을 느끼거나, 내가 동료 학생을 방해하거나 교수의 강의에 영향을 미칠까봐 참여하는 것이 주저된다’, ‘하이브리드 학습으로 운영되는 과정을 더 수강하고 싶지 않다’는 진술문에는 비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4 〈유형 4〉 오프라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하이브리드 학습에 대한 불만족형

1명의 P 표본이 포함된 〈유형 4〉는 오프라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하이브리드 학습에 대한 불만족형이다(〈표 10〉 참조). 동의하는 진술문으로는 ‘수업하는 동안 나와 다른 방식으로 접속해 있는 학생들과 같은 그룹처럼 느껴지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낀다’, ‘동기와 선후배들에게 논문과 관련해 도움

〈표 9〉 유형 3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25	하이브리드 학습은 팬데믹 상황에서 학업을 위한 빠른 대처 방법이며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	1.77462
28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필요하다.	1.65501
32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staff들의 테크놀로지 이슈 지원이 필수적이다.	1.34572
27	IT, 통계 등 실습 학습도 하이브리드 학습(온오프라인 혼합)으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	1.10053
31	하이브리드 학습 중 오프라인 수업을 선호한다.	1.08232
14	강의 장소에 제약이 받지 않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1.02242
24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내가 동료 학생을 방해하거나 교수의 강의에 영향을 미칠까봐 참여하는 것이 주저된다.	-1.48368
20	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줌, 구글 클래스, 학사시스템 등)을 사용하면서 좌절감을 느낀다.	-1.56293
19	하이브리드 학습으로 운영되는 과정을 더 수강하고 싶지 않다.	-1.58304
18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동료학생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1.7475
22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나는 고립감을 느낀다.	-1.9946

〈표 10〉 유형 4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33	수업하는 동안 나와 다른 방식으로 접속(오프라인 혹은 온라인)해 있는 학생들과 같은 그룹처럼 느껴지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낀다.	1.96116
23	동기와 선후배들에게 논문과 관련해 도움이 되는 학회와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	1.56893
32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staff들의 테크놀로지 이슈 지원이 필수적이다.	1.56893
17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나는 동료 학생들과의 소통이 어렵다.	1.1767
22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나는 고립감을 느낀다.	1.1767
28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필요하다.	1.1767
09	하이브리드 학습은 나의 학습기대를 충족 시킨다.	-1.1767
16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교수에게 질문하기 어렵다.	-1.1767
29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전반적으로 수업의 질에 만족한다	-1.1767
03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비판적 사고력이 향상되는 경험을 한다.	-1.56893
05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동료 학생들과 함께 할 때 가치있다고 느낀다.	-1.56893
08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원하는 교육효과/혜택을 얻는다.	-1.96116

이 되는 학회와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 ‘수업에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Staff들의 테크놀로지 이슈 지원이 필수적이다’라는 점을 들었다. 반면,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원하는 교육/효과 혜택을 얻는다’,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동료 학생들과 함께 할 때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비판적 사고력이 향상되는 경험을 한다’는 진술문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유형 4〉는 다른 유형에 비하여 ‘수업하는 동안 나와 다른 방식으로 접속해 있는 학생들과 같은 그룹처럼 느껴지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진술문에 강한 동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유형에 비해 학습에서 테크놀로지 활용이 익숙하지 않아 원활하게 수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있는 학습자들이 구분되어 느껴졌으며, 수업 중에 고립감을 느꼈음을 알 수 있다.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동료 학생들과 함께 할 때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라는 진술문에는 강하게 비동의하였으며, 기대하는 교육효과/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3.5 <유형 5>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효율 추구형

1명의 P 표본이 포함된 <유형 5>는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효율 추구형이다(<표 11> 참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으로는 '강의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동료 학생들과 함께 할 때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온라인 방식을 선택한 경우 학교에 가지 않아서 이동시간 및 비용이 절약된다'를 들었다. '학습자 인터뷰에서 비실시

간 동영상을 통해 반복 학습의 장점을 느낄 수 있으며 편의성, 학습접근성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 '수업하는 동안 나와 다른 방식으로 접속해 있는 학생들과 같은 그룹처럼 느껴지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낀다', '학습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는 진술문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학습이 출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믿는 것으로 해석되며, 학습자 상황에 따라 오프라인과 온라인 학습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형 5>는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효율 추구형으로 다른 유형에 비하여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동료 학생들과 함께 할 때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에 가장 강한 동의를 하였다. 반면, '수업하는 동안 나와 다른 방식으로 접속해 있는 학생들과 같은 그룹처럼 느껴지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진술문에 가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학습의 적절한 선택으로 인해 동료 학습자들과 상호

<표 11> 유형5의 진술문과 표준점수(±1.00 이상)

번호	진술문	표준점수
14	강의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1.96116
05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동료 학생들과 함께 할 때 가치가 있다고 느낀다.	1.56893
13	온라인 방식을 선택한 경우 학교에 가지 않아서 이동시간 및 비용이 절약된다.	1.56893
12	수업 참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중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1.1767
25	하이브리드 학습은 팬데믹 상황에서 학업을 위한 빠른 대처 방법이며 차선택이라고 생각한다.	1.1767
31	하이브리드 학습 중 오프라인 수업을 선호한다.	1.1767
06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동료 학생들은 나의 의견과 판단을 지지해 준다.	-1.1767
09	하이브리드 학습은 나의 학습기대를 충족 시킨다.	-1.1767
15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내 학업 성과에 대해 교수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어렵다.	-1.1767
07	학습관리시스템(Zoom, 구글클래스, 학사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1.56893
33	수업하는 동안 나와 다른 방식으로 접속(오프라인 혹은 온라인)해 있는 학생들과 같은 그룹처럼 느껴지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낀다.	-1.56893
10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	-1.96116

작용을 하여 기대하는 교육 혜택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4 일치항목

일치 항목은 각 요인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합의된 항목들을 의미한다. 모든 유형이 일치하는 항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 5>를 제외하고 <유형 1> ~ <유형 4>가 일치하는 항목으로는 하이브리드 학습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일치 정도가 높은 진술문을 분석한 결과,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필요하다'가 일치하는 정도가 높은 진술문으로 나타났다. 학습자 인터뷰 중에서 수업 중에 다양한 미디어나 참고자료들을 편하게 볼 수 있어서 학습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이를 뒷받침한다.

V. 결론 및 시사점

5.1 결론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활용하여 COVID-19 시대에 경영대학원들이 하이브리드 학습 경험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을 구분하고 특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과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의 목적에 따라 Q 방법론을 통하여 이들 진술문에 대한 인식 정도를 바탕으로 유형화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하이브리드 학습 관련 진술문 33개(Q 표본)를 확보하고, 18명의 응답자(P 표본)를 대상으로 인식의 유형화(Q-Sort)를 실시하였다. 온라인 Q Methodology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유형화 결과, 5개의 유형으로 정의되었고, 유형의 설명력은 <유형 1>이 43%, <유형 2>이 13%, <유형 3>이 7%, <유형 4>는 7%, <유형 5>는 6%로 나타났다. 전체 유형 설명력은 76%로 나타났다. 보통 Q 분석 결과가 25% 이상이면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각 유형의 응답 진술문을 바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1>은 학습 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학습방식으로 인식하는 긍정형, <유형 2>는 비대면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인식하는 온라인 학습 선호형, <유형 3>은 비대면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인식하는 오프라인 학습 선호형, <유형 4>는 오프라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불만족형, <유형 5>는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효율추구형로 나타났다. 셋째, 하이브리드 학습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일치 정도가 높은 진술문을 분석한 결과,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필요하다'가 일치하는 정도가 높은 진술문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12>는 하이브리드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경험을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으로 유형을 분석하였다. <유형 1> 학습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미래 학습 방식으로 인식하는 긍정형과 <유형 5>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효율추구형은 하이브리드 학습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유형이다. 반면, <유형 4> 오프라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하이브리드 학습에 대한 불만족형은 부정적으로 인식하였다. '하이브리드 학습은 나의 학습 기대를 충족시킨다'는 학습효과와 관련된 진술문에 대해 <유형 1>은 동의하였지만, <유형 4>는 동의하지 않았다.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동료 학생들과 함께 할 때 가치 있다고 느낀다'는 TDSS 관련 진술문에 <유형 5>는 동의하였지만 <유형 4>는 동의하지 않았다.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나는 고립감을 느낀다.'라는 학습과정 관련 진술문에서 <유형 4>는 동의하였지만 <유형 1>은 동의하지 않았다. <유형 1>과

〈표 12〉 하이브리드 학습에 대한 학습자의 긍정과 부정적 인식에 따른 유형 분석

구분	긍정적 인식		부정적 인식			
	〈유형 1〉 학습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미래 학습 방식으로 인식하는 긍정형	〈유형 5〉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효율추구형	〈유형 4〉 오프라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하이브리드 학습에 대한 불만족형			
동의한다	12	수업 참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중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14	강의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33	수업하는 동안 나와 다른 방식으로 접속해 있는 학생들과 같은 그룹처럼 느껴지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낀다.
	9	하이브리드 학습은 나의 학습 기대를 충족시킨다	5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동료 학생들과 함께 할 때 가치있다고 느낀다.	23	동기와 선배들에게 논문과 관련해 도움이 되는 학회와 활동에 대한 정보를 교류할 수 없다.
	11	앞으로도 박사과정은 하이브리드 학습 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면 좋겠다.	13	온라인 방식을 선택할 경우 학교에 가지 않아서 이동시간 및 비용이 절약된다.	32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staff들의 테크놀로지 이슈 지원이 필수적이다.
	29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전반적으로 수업의 질에 만족한다.	12	수업 참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중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17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나는 동료 학생들과의 소통이 어렵다.
	28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필요하다	25	하이브리드 학습은 팬데믹 상황에서 학업을 위한 빠른 대처 방법이며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	22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나는 고립감을 느낀다.
동의하지 않는다	22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나는 고립감을 느낀다.	9	하이브리드 학습은 나의 학습 기대를 충족시킨다.	16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교수에게 질문하기 어렵다.
	21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다루는 내용이 흥미롭지 않다.	15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내 학습 성과에 대해 교수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어렵다.	29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전반적으로 수업의 질에 만족한다.
	20	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좌절감을 느낀다.	7	학습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3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비판적 사고력 향상을 경험하는 경향을 한다.
	18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동료학생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33	수업하는 동안 나와 다른 방식으로 접속해 있는 학생들과 같은 그룹처럼 느껴지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낀다.	5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동료 학생들과 함께 할 때 가치있다고 느낀다.
	19	하이브리드 학습으로 운영되는 과정을 더 수강하고 싶지 않다.	10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	8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원하는 교육 효과/혜택을 얻는다.

〈유형 5〉는 모두 긍정적 인식으로 구분되지만, ‘하이브리드 학습은 나의 학습 기대를 충족시킨다’라는 학습효과 관련 진술문에서 〈유형 1〉은 동의하였지만, 〈유형 5〉는 동의하지 않았다. 이는 하이브리드 학습 경험에서 유형별로 인식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표 13〉은 하이브리드 학습을 비대면 상황에서의

차선책으로 인식하는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유형 2〉 비대면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인식하는 온라인 학습 선호형과 〈유형 3〉 비대면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인식하는 오프라인 학습 선호형은 ‘하이브리드 학습은 팬데믹 상황에서 학업을 위한 빠른 대처 방법이며 차선책이라고 생각한다’는 학습과정 관련 진술문에 가장 동의하였다. 〈유형 5〉 장소에 제약을 받지

〈표 13〉 하이브리드 학습을 차선택으로 인식하는 유형 분석

구분	비대면 상황에서 차선택으로 인식하는 유형		
	〈유형 2〉 비대면 상황에서 차선택으로 인식하는 온라인 학습 선호형	〈유형 3〉 비대면 상황에서 차선택으로 인식하는 오프라인 학습 선호형	〈유형 5〉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효율추구형
동의한다	25 하이브리드 학습은 팬데믹 상황에서 학업을 위한 빠른 대처 방법이며 차선택이라고 생각한다.	25 하이브리드 학습은 팬데믹 상황에서 학업을 위한 빠른 대처 방법이며 차선택이라고 생각한다.	14 강의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16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교수에게 질문하기 어렵다	28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특히 자기 주도적 학습 태도가 필요하다	5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동료 학생들과 함께 할 때 가치있다고 느낀다.
	15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내 학습 성과에 대해 교수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어렵다.	32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staff들의 테크놀로지 이슈 지원이 필수적이다.	13 온라인 방식을 선택할 경우 학교에 가지 않아서 이동시간 및 비용이 절약된다.
	28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필요하다.	27 IT, 통계 등 실습 학습도 하이브리드 학습으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	12 수업 참여를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식 중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
	4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배운 이론과 개념을 실제 문제나 새로운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다.	31 하이브리드 학습 중 오프라인 수업을 선호한다.	25 하이브리드 학습은 팬데믹 상황에서 학업을 위한 빠른 대처 방법이며 차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21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다루는 내용이 흥미롭지 않다.	24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내가 동료 학생을 방해하거나 교수의 강의에 영향을 미치는 이 주저된다.	9 하이브리드 학습은 나의 학습 기대를 충족시킨다.
	14 강의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20 학교의 학습관리시스템을 사용하면 좌절감을 느낀다.	15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내 학습 성과에 대해 교수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어렵다.
	11 앞으로도 박사과정은 하이브리드 학습방식으로 운영하였으면 좋겠다.	19 하이브리드 학습으로 운영되는 과정을 더 수강하고 싶지 않다.	7 학습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26 내 조언을 구하는 예비 학습자에게 하이브리드 학습방식의 박사과정을 추천하겠다.	18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동료 학생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다.	33 수업하는 동안 나와 다른 방식으로 접속해 있는 학생들과 같은 그룹처럼 느껴지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느낀다.
	27 IT, 통계 등 실습 학습도 하이브리드 학습으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다.	22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나는 고립감을 느낀다.	10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다.

않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효율 추구형도 해당 진술문에 동의하였다. 〈유형 2〉와 〈유형 3〉은 학습과정 관련 진술문인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필요하다’에 동의하였다. 〈유형 2〉는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내 학습 성과에 대해 교수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어렵다’는 TDST 진술문에 동의한 반면, 〈유형 5〉는 동의하지 않았다.

〈유형 5〉가 ‘강의 장소에 제약을 받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는 학습과정 관련 진술문에 가장 동의한 반면, 〈유형 2〉는 동의하지 않았다.

다음의 〈표 14〉는 하이브리드 학습을 경험한 학습자의 인식 유형에 따라 교류적 거리를 분석한 결과이다. 〈유형 1〉 학습 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학습방식으로 인식하는 긍정형은 TDST, TDSS,

〈표 14〉 학습자의 인식 유형별 교류적 거리 분석

유형		학습자- 교수자 교류적 거리 (TDST)	학습자- 학습자 교류적 거리 (TDSS)	학습자- 콘텐츠 교류적 거리 (TDSC)	학습자- 테크놀로지 교류적 거리 (TDSTECH)	학습결과	학습과정	만족도
유형 1	학습 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학습방식으로 인식하는 긍정형	가깝다 (상호작용)	가깝다 (상호작용)	가깝다 (기대충족)	가깝다 (능숙)	효과적	효과적	높다
유형 2	비대면 상황에서 차선택으로 인식하는 온라인 학습 선호형	멀다 (소외감)	멀다 (지지받지 못함)	가깝다 (접근성)	멀다 (미숙)	비효과적	효과적	낮다
유형 3	비대면 상황에서 차선택으로 인식하는 오프라인 학습 선호형	가깝다 (상호작용)	가깝다 (상호작용)	가깝다 (기대충족)	멀다 (미숙)	효과적	효과적	높다
유형 4	오프라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하이브리드 학습에 대한 불만족형	멀다 (소외감)	멀다 (그룹의 분리감)	멀다 (기대 미충족)	가깝다* (staff의 지원)	비효과적	비효과적	낮다
유형 5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효율 추구형	멀다 (소외감)	가깝다 (상호작용)	가깝다 (접근성)	가깝다 (능숙)	비효과적	효과적	높다
하이브리드 학습에서의 성공 요소		교수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	인지적 실재감				

TDSC, TDSTECH가 모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수자,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잘되고, 학습과정과 효과에 대해 학습 기대를 모두 충족하여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 학습에 대해 만족하였다. 향후 박사과정이 지속적으로 하이브리드 학습 방식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유형 2〉 비대면 상황에서 차선택으로 인식하는 온라인 학습 선호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TDSTECH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테크놀로지 활용이 능숙하지 않지만, 보건위생 안전성을 고려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온라인 학습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며, 테크놀로지 활용이 능숙하지 않음에 따라 오프라인 현장과의 거리감을 크게 인식하고,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하여 교수자와 동료 학습자와의 실재감을 느끼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소외감과 동료들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학습효과를 비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유형 3〉 비대면 상황에서 차선택으로 인식하는 오프라인 학습 선호형은 TDST, TDSS, TDSC가 가깝다고 인식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서

테크놀로지 활용이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프라인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습과정과 효과 측면에서는 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다. <유형 4> 오프라인으로 돌아가고 싶은 하이브리드 학습에 대한 불만족형은 TDST, TDSS, TDSC가 먼 것으로 나타났으며, TDSTECH의 경우, 현장에서 Staff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가깝다고 느끼고 있었다. 오프라인 학습자와 온라인 학습자가 한 그룹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원활하지 못하였다. 학습과정과 효과를 비효과적으로 인식하고,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낮았다. 이는 하이브리드 학습을 경험한 학생들은 오프라인 학습만 듣거나, 실시간 온라인 학습만 들 때 보다 상호작용에 더 많은 불편함을 느꼈다는 선행연구(Kohnke & Moorhouse, 2021)의 결과와 일치한다. <유형 5>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효율추구형은 테크놀로지 활용을 능숙하게 하고, TDSC의 접근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가깝다고 느끼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잘하고 있지만, 교수자와의 상호작용은 원활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다. 어느 방식이든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학습과정은 만족하고 있지만, 학습효과 측면에서는 학습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식하였다. 상황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학습자들이 경험한 하이브리드 학습에 대한 인식한 결과를 토대와 교류적 거리를 기반으로 한 탐구 공동체 모델과 연결하여, 하이브리드 학습의 교수-설계 전략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실재감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테크놀로지 기반 학습 환경을 고려한 실재감에 대한 정의는 학습자가 교수-학습 상황과 과정에 실제 존재한다고 지각하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Garrison, Anderson & Acher, 2001). 제공되는 학습 환경과 학습 활동

의 구성에 따라 하이브리드 학습의 학습자는 학습 과정에서 실재감을 각기 달리 지각하고, 이러한 실재감의 차이에 따라 학습자의 학습경험에 질적인 차이를 가져온다고 본다. Garrison, Anderson & Acher (2001)는 온라인 학습에서 추구해야 할 학습으로 성찰적 사고와 비판적 담화를 강조한 탐구 공동체(Community of Inquiry)모형을 제안하고 성공적인 학습의 필수적인 요소로 교수 실재감(Teaching Presence), 인지적 실재감(Cognitive Presence), 사회적 실재감(Social Presence)을 제시한다. 학습자들이 지각하는 실재감 수준이 향상되면 학습자는 자신이 학습하는 내용이나 상황에 대해 의미 있는 학습을 하게 되고,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몰입하게 되며, 나아가 긍정적인 학습 결과를 낳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 학습자들이 실재감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기주도적 학습에 대한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학습 과정에서 몰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실재감은 학습자가 학습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의미 있는 학습을 경험하는데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된다(Beatty, 2019).

교수 실재감은 교수를 설계하고 조직화하는 측면과 함께 학습촉진이라는 전반적인 교수현상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을 의미한다. 탐구 공동체 모형에서는 교수 실재감을 학습자의 인지적, 사회적 과정을 설계하고 촉진하며 안내하는 것에 대한 학습자의 인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교류적 거리에서는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거리로 볼 수 있는데, 학습내용을 구조화하고, 학습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담화를 촉진해 나가는 교수 실재감은 학습자가 의미 있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므로, 특히 하이브리드 학습에서는 중요한 변인이라 볼 수 있다.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교수 실재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수자의 사전 수업 설계 과정이 필요하고, 직접 강의하고, 퍼실리테이션하는 활동이 중요하며, 평가를 위한 설계와 개발 활동이 필요하다. 교수자는 수업 설계를 준

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실재감과 인지적 실재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지적 실재감은 학습 상황과 내용과 관련하여 학습자의 지적인 측면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기 때문에 실재감의 경험에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 Garrison, Anderson & Acher(2001)는 인지적 실재감을 학습자가 성찰과 담화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확인할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인지적 실재감은 Dewey의 실천적 탐구모형에 근거를 두고 문제를 인식하고, 비평적 성찰과 담화를 통해 해결책을 탐색하고 앞 단계에서의 아이디어를 통합하며, 마지막으로 학습이나 업무에서 얻은 새로운 지식을 적용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4단계로 요약된다. 즉 인지적 실재감은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학습자들이 학습활동을 통해서 학습내용을 이해하고 스스로 지식을 창출하는 능력에 대한 인식이라 할 수 있다. 교류적 거리에서는 콘텐츠와 학습자 간의 거리로 볼 수 있다. 인지적 실재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의미를 구성할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 통합적 사고 등 고차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사회적 실재감은 매체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학습자 자신을 사회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지각하는 정도로 교류적 거리에서는 학습자와 학습자 간의 거리로 볼 수 있다. 즉, 상대방이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을 넘어 그 대상과 소통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인식할 때 사회적 실재감이 형성된다. 특히 개별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는 하이브리드 학습 환경에서는 학습자들이 고립감, 외로움 등의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거리감을 해소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학습의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서는 상대방과 소통하고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사회적 실재감이 필수적이다. 사회적 실재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과 관계에 초점을 두는 교수 설계가 필요하며,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2 시사점

본 연구는 COVID-19 시대에 혼란을 야기한 하이브리드 학습에 대한 경영대학원생들의 다양한 욕구와 시각을 사례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고, 학문적 시사점과 실무적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학문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Q 방법론을 사용하여 경영대학원생들의 하이브리드 학습에 대한 인식 유형을 도출한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교류적 거리 이론에 기반하여, 학습자 인식 유형에 따른 교류적 거리를 분석하였고, 탐구공동체 모형에서 논의되는 실재감과 이를 연결하였다는 점이다. 원격교육에서의 교류적 거리 이론을 하이브리드 학습으로 영역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의 실무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학습자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진술문을 다른 연구에서도 본 연구의 진술문을 기반으로 연구할 수 있다. Q 방법론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내용타당도, 안면타당도의 단계를 거쳤다. 내용타당도 검증은 일반적으로 문헌고찰에 의존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에 의한 하이브리드 관련 문헌 및 선행연구 고찰, 경영대학원 3인 심층인터뷰에 의한 33개 진술문 내용 적절성 확인 등으로 검증하였다. 그리고 안면타당도는 경영대학원 3인과 전문가 5인이 사전모의 Q 분류를 통해 진술문의 수정·보완 단계를 거쳐 이루었다. 개념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는 0.7 이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는 적합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경영대학원 현장에서 학습자의 하이브리드 학습 경험을 고취시켜 학습 과정과 결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수 실재감,

인지적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을 구현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수립하고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5.3 연구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첫째, 연구대상자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는 경영대학원생으로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국내 모든 대학원생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COVID-19라는 보건 위생과 관련된 부분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제가 있다. 비상 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연구결과가 동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세 가지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학습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유형 1> 학습 참여를 선택할 수 있는 미래의 학습방식으로 인식하는 긍정형은 TDST, TDSS, TDSC, TDSTECH가 모두 가까운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수자, 동료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잘되고, 학습과정과 효과에 대해 학습 기대를 모두 충족하여 전체적으로 하이브리드 학습에 대해 만족한 것이다. 이 유형에서 보여주고 있는 변수들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추가적인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유형 5>를 제외하고 <유형 1> ~ <유형 4>가 일치하는 항목으로는 하이브리드 학습에 대한 응답자의 인식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일치 정도가 높은 진술문을 분석한 결과, '하이브리드 학습에서 특히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필요하다'가 일치하는 정도가 높은 진술문으로 나타났다.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가 낮은 학생들은 하이브리드 학습을 수행하기 전의 사전학습으로 이 역량을 어떻게 높여줄 것인지에 관한 선행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하이브리드 학습이 효과적으로 진행되

기 위해서는 교수 실재감, 사회적 실재감, 인지적 실재감이 높아야 하는데, 실재감을 높이기 위한 교수-학습 전략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bdelmalak, M. M. M., & J. L. Parra(2016), Expanding Learning Opportunities for Graduate Students with HyFlex Course Design, *International Journal of Online Pedagogy and Course Design*, <https://doi.org/10.4018/IJOPCD.2016100102>
- Anastasiades, P. S., G. Filippousis, L. Karvunis, S. Siakas, A. Tomazinakis, P. Giza & H. Mastoraki(2010), Interactive Videoconferencing for Collaborative Learning at a Distance in the School of 21st Century: A Case Study in Elementary Schools in Greece, *Computers & Education*, <https://doi.org/10.1016/j.compedu.2009.08.016>
- Andersen, K. M., M. D. Avery(2008), Faculty Teaching Time: A Comparison of Web-Based and Face-to-Face Graduate Nursing Courses,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Scholarship*, 5(1).
- Andrade, M. S., R. M. Miller, M. B. Kunz & J. M. Ratliff(2019), Online Learning in Schools of Business: The Impact of Strategy on Course Enrollments, *Journal of Higher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9(5), 48-57.
- Bachrach, D. G., Bendoly, E., Beu Ammeter, D., Blackburn, R., Brown, K. G., Burke, G., Callahan, T., Chen, K. Y., Day, V. H., Ellstrand, A. E., Erikson, O. H., Gomez, J. A., Greenlee, T., Handfield, R., Loudder, M. L., Malhotra, M., Petroni, K. R., Sevilla, A., Shafer, S., Shih, M. & Voss, D.(2017),

- On Academic Rankings, Unacceptable Methods, and the Social Obligations of Business Schools, *Decision Sciences*, 48(3), 561-585.
- Beatty, B. J.(2007), Hybrid Classes with Flexible Participation Options - If You Build It, How Will They Come? Paper Presented at the 2007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Annual Convention (October), Anaheim, CA: *Association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http://citeseerx.ist.psu>.
- Beatty, B. J.(2019), Hybrid-Flexible Course Design: Implementing Student-Directed Hybrid classes, *EdTech Books*.
- Bell, J., S. Sawaya & W. Cain(2014), Synchromodal Classes: Designing for Shared: Learning Experiences Between Face-to-Face and Onlin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Designs for Learning*, 5(1). <https://doi.org/10.14434/ijdl.v5i1.12657>.
- Bettinger, E., S. Loeb(2017), Promises and Pitfalls of Online Education, *Evidence Speaks Reports*, 2(15), 1-4.
- Bower, M., B. Dalgarno, G. E. Kennedy, M. J. W. Lee & J. Kenney(2015), Design and Implementation Factors in Blended Synchronous Learning Environments: Outcomes from a Cross-Case Analysis, *Computers & Education*, 86, 1-17. <https://doi.org/10.1016/j.compedu.2015.03.006>.
- Bower, M., J. Kenney, B. Dalgarno, M. J. Lee & G. E. Kennedy(2014), Patterns and Principles for Blended Synchronous Learning: Engaging Remote and Face-to-Face Learners in Rich-Media Real-time Collaborative Activities. *Australasia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0(3).
- Branch, R. M., T. A. Dousay(2015), Welcome to Jacksonville and the 2014 AECT International Convention, Sat, 10, 9-15.
- Butz, N. T., M. K. Askim-Lovseth(2015), Oral Communication Skills Assessment in a Synchronous Hybrid MBA Programme: Does Attending Face-to-Face Matter for US and International Students? *Assessment and Evaluation in Higher Education*, <https://doi.org/10.1080/02602938.2014.940577>
- Butz, N. T., R. H. Stupnisky, R. Pekrun, J. L. Jensen & D. M. Harsell(2016), The Impact of Emotions on Student Achievement in Synchronous Hybrid Business and Public Administration Programs: A Longitudinal Test of Control-Value Theory, *Decision Sciences Journal of Innovative Education*, 14(4), 441-474. <https://doi.org/10.1111/dsji.12110>.
- Cavanagh, D.(2005), Coronaviruses in Poultry and Other Birds, *Avian Pathology*, 34(6), 439-448.
- Cunningham, U.(2014), Teaching the Disembodied: Othering and Activity Systems in a Blended Synchronous Learning Situ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Open and Distributed Learning*, 15(6), 33-51.
- Do, J. W.(2020), An Investigation of Design Constraints in the Process of Converting Face-to-face course into Online Course,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6(2), 153-173 [printed in Korea].
- Frazer, C., D. H. Sullivan, D. Weatherspoon & L. Hussey(2017), Faculty Perceptions of Online Teaching Effectiveness and Indicators of Quality, *Nursing Research and Practice*, 2017.
- Garrison, D. R., T. Anderson & W. Archer(2001), Critical thinking, cognitive presence, and computer conferencing in distance education, *American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

- 15(1), 7-23.
- Ghoshal, S.(2005), Bad Management Theories are Destroying Good Management Practices,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4(1), 75-91.
- Han, S., G. Lee(2021), A Case Study of Hyflex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Teaching Profession Course at A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7(5), 269-289 [printed in Korea].
- Hastie, M., I. C. Hung, N. S. Chen & Kinshuk(2010), A Blended Synchronous Learning Model for Educational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novations in Education and Teaching International*.
<https://doi.org/10.1080/14703290903525812>
- Hussar, W. J., T. M. Bailey(2019), Projections of Education Statistics to 2027, NCES 2019-001.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 Irvine, V.(2010), Exploring Learner Needs for Collaboration and Access, In EdMedia+ Innovate Learning,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mputing in Education(AACE)*, 1093-1097.
- Irvine, V.(2020), The Landscape of Merging Modalities. *Educause Review*, 4, 40-58.
<https://er.educause.edu/articles/2020/10/the-landscape-of-merging-modalities>. Accessed 9 May 2021
- Jang, H. Y., Y. M. Lee(2019), The Subjectiveness of Decent Jobs using Q Methodology,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9(8), 620-629 [printed in Korea].
- KERIS(2020), [특집호] 고등교육·학술연구 에디션: 2020 ICT 융합교육 글로벌 동향, ICT융합교육.
- Kim, D. Y., M. Y. Lee(2015), An Analysis on the Type of HRD Stakeholders' Subjective Perception on Utilization of HRD Program Evaluation Results: Focusing on HRD Practitioners, Consultants, and Researchers, *Korea Business Review*, 19(1), 227-247 [printed in Korea].
- Kohan, E. B.(2020), Yes, Exec Ed Programs can Deliver Value Online: Pedagogical Approaches to Elevate the Impact of Remote Executive Education. Inspiring Minds, *Harvard Business Publishing*. Accessed April 26, 2021, <https://hbsp.harvard.edu/inspiring-minds/yes-exec-ed-programs-can-deliver-value-online/?cid=web%7Cwebinar-recording-page%7C2021-03-4-webinar-recording-page-what-lies-beyond-the-future-of-executive-education%7Cnone%7Cwebinar%7Ceducator%7Cinspiring-minds-article%7Cmar2021>
- Kohnke, L., B. L. Moorhouse(2021), Adopting HyFlex in Higher Education in Response to COVID-19: Students' Perspectives, *Open Learning: The Journal of Open, Distance and e-Learning*, 1-14.
- Lakhal, S., D. Bateman & J. Bedard(2017), Blended Synchronous Delivery Mode in Graduate Programs: A Literature Review and Its Implementation in the Master Teacher Program, *Collected Essays on Learning and Teaching*, 10. <http://dx.doi.org/10.22329/celt.v10i0.4747>.
- Lee, J. E.(2020), Crisis and Opportunities in Higher Education Stimulated by Edutech. *Korea Business Review*, 24(special), 151-171 [printed in Korea].
- Lee, S. Y., H. Y. Kim(2019), Perception of Anxiety as the passion of the Enneagram Type 6 using Q methodology, *Coaching Research*, 12(2), 27-46 [printed in Korea].
- Lutfallah, S., L. Buchanan(2019), Quantifying subjective data using online Q-methodology software, *The Mental Lexicon*, 14(3), 415-423. doi: <https://doi.org/10.1075/ml.20002.lut>
- McCluskey, C. P., D. R. Shaffer, E. M. Grodzia

- & K. W. Hove(2012), Strategic Plan on FlexLearning.
- Miller, A. N., Sellnow, D. D., & Strawser, M. G. (2021), Pandemic Pedagogy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Instruction Communication in Remote, HyFlex, and BlendFlex Courses. *Communication Education*, 70(2), 202-204.
- Park, J. S., S. H. Lee(2021), A Study on the Type of Perception Graduate Students' Online Class Using Q Methodology: Graduate Students Majoring in Counseling and Coaching,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7(1), 77-99 [printed in Korea].
- Park, M. H., C. Y. Park(2022), Hybrid Learning at Harvard Business School and aSSIS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 Case Study of Equity, Collaboration, Experiment, and Innovation, *Journal of Creativity and Innovation*, 15(1), 89-138 [printed in Korea].
- Park, Y. J., C. J. Bonk(2007), Synchronous Learning Experiences: Distance and Residential Learners' Perspectives in a Blended Graduate Course, *Journal of Interactive Online Learning*, 6(3), 245-264.
- Paul, R. C., W. Swart & K. R. MacLeod(2022), A Scale for Measuring Relative Proximity of Transactional Distance, *Distance Education*, 43(1), 78-96.
- Peters, K., R. R. Smith & H. Thomas(2018), Rethinking the Business Models of Business Schools, *A Critical Review and Change Agenda for the Future*. 19(8), 620-629.
- Raes, A., L. Detienne, I. Windey & F. Depaepe (2019),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Synchronous Hybrid Learning: Gaps Identified, *Learning Environments Research*, 23(3), 269-290.
<https://doi.org/10.1007/S10984-019-09303-Z>
- Raman, R., N. Sullivan, H. Zolbanin, L. Nittala, M.Hvalshagen & R. Allen(2021), Practical Tips for HyFlex Undergraduate Teaching During a Pandemic, *Communications of the Association for Information Systems*, 48(1), 28.
- Ramsey, D., J. Evans & M. Levy(2016), Preserving the Seminar Experienc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Education*, <https://doi:10.1080/15512169.2015.1077713>
- Sawhney, M.(2021), What Lies Beyond: The Future of Executive Education. *Harvard Business Publishing Webinar*. Accessed April 26, 2021. <https://hbsp.harvard.edu/webinars/what-lies-beyond-the-future-of-executive-education/?cid=email%7Celoqua%7C2021-04-20-the-faculty-lounge%7C339003%7Cfaculty-lounge-newsletter%7Cnewsletter-subscribers%7Cvarious%7Capr20212397&acctID=8350900>
- Shea, P.(2007), Bridge and Barriers to Teaching Online College Courses: A Study of Experienced Online Faculty in Thirtysix Colleges, *Journal of Asynchronous Learning Networks*, 11(2).
- Stewart, A. R., D. B. Harlow & K. DeBacco(2011), Students' Experience of Synchronous Learning in Distributed Environments, *Distance Education*, <https://doi.org/10.1080/01587919.2011.610289>
- Thomas, H., M. Lee & A. Wilson(2014), Future Scenarios for Management Education,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 Tomei, L.(2006), The Impact of Online Teaching on Faculty Load: Computing the Ideal Class Size for Online Courses, *Journal of Technology and Teacher Education*, 14(3), 531-541.
- Üsdiken, B., M. Kipping & L. Engwall(2021), Professional School Obsession: An Enduring Yet Shifting Rhetoric by US Business Schools,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20(3), 442-458.

Yeo, E., J. Kim, S. Han(2015), Applying MOOC-Based Flipped Learning to Business Education : Analysis of Academic Achievement and Student Satisfaction, *Korea Business Review*, 19(4), 181-202 [printed in Korea].

국내참고문헌

- 권순창(2020), 경영 교육혁신 원칙과 제도화, **경영 교육 뉴 패러다임**, 매일경제신문사.
- 김대영, 이민영(2015), HRD 프로그램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주관적 인식 유형 분석, *Korea Business Review*, 19(1), 227-247.
- 김홍규(2008), **Q방법론 과학철학, 이론, 분석 그리고 적용**, 커뮤니케이션북스.
- 도재우(2020), 먼대면 수업의 온라인 수업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장애물에 대한 탐색, *교육문화연구*, 26(2), 153-173.
- 박미혜, 박정열(2022),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과 어시스트 경영대학원의 하이브리드 학습: 공평성, 협업, 실험, 혁신의 사례연구, **창조와 혁신**, 15(1), 89-138.
- 박병영(2017), 2017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 고등교육·취업통계편 (SM2017-05), [KEDI] 연구보고서, 1-134.
- 박정서, 이상희(2021), Q방법론을 활용한 대학원생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식 유형 연구: 상담 및 코칭 전공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7(1), 77-99.
- 박찬수, 류수영(2020), 경영학 교수법의 혁신, 플립러닝과 문제중심 학습, **경영 교육 뉴 패러다임**, 매일경제신문사.
- 여은정, 김진백, 한승희(2015), 대학 경영 교육에서 혁신적 교수법 적용에 따른 학습 성과 및 수강생 만족도 분석과 시사점, *Korea Business Review*, 19(4), 181-202.
- 이두희, 윤성수, 이성호(2020), 대한민국 경영학의 재중흥, 경영 교육의 대전환으로 시작하다, **경영 교육 뉴 패러다임**, 매일경제신문사.
- 이상민, 최성진(2020), 경영대학 교육과정 혁신, **경영 교육 뉴 패러다임**, 매일경제신문사.
- 이송이, 김혜원(2019), 에니어그램 6유형의 불안 인식유형에 관한 주관성 연구, *코칭연구*, 12(2), 27-46.
- 이지은.(2020). 에듀테크로 촉발되는 고등교육의 위기과 기회, *Korea Business Review*, 24(신년 특별호), 151-171.
- 장하연, 이영민(2019), Q 방법론을 활용한 괜찮은 일자리에 대한 주관성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8), 620-629.
- 조동성(2021), AI시대에, 경영학 박사만 경영대 교수 돼야 하나, *DBR* 318호, 2021년 4월 Issue1.
- 한송이, 이가영(2021), 대학교육에서 하이플렉스(Hyflex) 수업 사례 연구: A대학의 사범대 교직 강좌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7(5), 269-289.

Analyzing Business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Hybrid Learning Using Q Methodology

Mi Hye Park* · Cheong Yeul Park**

Abstract

This research introduces a more effective learning method by categorizing business school students' perception of the transition from offline face-to-face learning to hybrid learning du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Q methodology was adopt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Q sample consisted of 33 statements. Sample P consisted of 18 students who experienced hybrid learning, and data were collected and analyzed through the online Q Methodology software. A total of five different perception types were derived: "Type 1" recognized hybrid learning as the future learning method in which students can choose their own learning participation. "Type 2" recognized it as the second-best solution in the non-face-to-face situation and preferred online learning. "Type 3" recognized it as the second-best in the non-face-to-face situation but preferred offline learning. "Type 4" was a dissatisfied type that wanted to go back to offline learning. "Type 5" sought efficiency and preferred the ability to participate comfortably without locational constraints. This study provides a meaningful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ive perception of hybrid learning that can be suggested as a new learning method for business schools after the post-COVID-19 period. This research expects to provide a basis for establishing an effective hybrid learning method and a systematic education-learning strategy to further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management education.

Key Words: Hybrid Learning, Management Education, Educational Innovation, Subjective Perception, Q Methodology

* PhD, Seoul Business School,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and Technologies

** Associate Professor, Seoul Business School, Seoul School of Integrated Sciences and Technologies